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조영아 · 전우택 · 민성길

The Ego Defense Mechanism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Young-A Cho, PhD, Woo-Taek Jeon, MD and Sung-Gil Mi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differences of ego defense mechanisms between South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ego defense mechanisms and perceptions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ree groups.

Methods :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00 South Koreans, 93 North Korean defectors and 86 Korean-Chinese. 21 North Korean defectors and 10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 questionnaire results of the study.

Results : North Korean defectors used more active defense styles and emotion repressive defense styles than South Koreans. Korean-Chinese used more passive defense styles tha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outh Koreans on 'denial', 'splitting', 'withdrawal', 'suppression', 'altruism', 'task orientation' and 'anticipation' in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 The defense sty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ountries.

Conclusion : From our results it was inferr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ense styles among three groups,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defense mechanism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future study was discusse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3):345-353)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 Defense mechanism · Socio-cultural characteristic.

서 론

남북 사회의 통합은 제도, 정치의 통합만이 아니라 사람의 통합을 의미한다. 현재 4000명이 넘는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이 '사람의 통합'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 들어 '사람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특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남한 내 탈북 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9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 탈북 주민을 통해 북한 사람들의 심리적, 의식적, 행동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¹⁻¹¹⁾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이들의 적응상의 문제나 표면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러한 특성을 표면화시키는 심리적 적응기제를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아방어기제는 불안이나 공격성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내적 갈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욕구나 본능, 희망, 충동과 외부 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심리적 기제를 말한다.¹²⁾ 자아방어기제는 정신 건강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성격장애나 정신장애,¹³⁻¹⁵⁾ 심리 사회적 발달,¹⁶⁾ 적응 수준, 건강,^{15,17)} 도덕 발달수준¹⁸⁾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개인 및 집단 특유의 적응양식이나 행동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한 개인이 어떠한 적응기제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19,20)} 문화에 따라서 자아를 위협하는 외부적 상황도 달라지며, 외부 자극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나 자극에 대한 평가, 대처자원도

접수일자 : 2004년 1월 12일 / 심사완료 : 2004년 3월 15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ung-A Cho,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 +82.2-2123-4315, Fax : +82.2-363-5513
E-mail : life7777@yonsei.ac.kr

달라진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체제 종속적 사회환경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뚜렷한 이질화를 보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집단주의 문화로, 강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개인주의 문화로, 비교적 정치적 통제가 약한 개방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적 가치관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회를 이루고 있다.^{5,21)} 따라서 이러한 남북한 문화의 차이는 남북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적응 방식인 자아방어기제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헌자료와 관찰을 토대로 한 여러 연구들은 남한사람들은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 투사, 전치를,²²⁻²⁴⁾ 북한 사람들은 억제, 투사, 반동형성, 이타주의, 행동화, 수동공격, 분리를,^{3,6)} 주로 사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탈북 주민의 정신기제와 이것에 영향을 미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북한 사람들 특유의 생존 전략을 이들이 저한 특수한 환경과의 유기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남한에 거주하는 조선족들과의 비교도 수행하였다. 조선족은 북한 사람들과 유사한 사회주의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받았으면서도 북한 사람들과는 다른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즉, 조선족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북한 사람들만이 지난 독특한 적응 양상과 정신기제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남한 내 거주하는 탈북 주민과 남한주민, 남한 거주 조선족의 자아방어기제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각 집단의 자아방어기제가 각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지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방 법

설 문

연구대상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한 주민 100명(남자 45명, 여자 55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에 거주하는 탈북 주민 93명(남자 44명, 여자 49명), 남한에 거주하는 조선족 86명(남자 30명, 여자 56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남한 주민의 평균 나이는 32.0세($SD=8.75$), 탈북주민의 평균 나이는 31.4세($SD=7.65$), 조선족의 평균 나이는 38.9세($SD=11.62$)였다. 결혼 상태를 보면, 기혼자가 남한주민 48명(48%), 탈북주민 53명(58.9%), 조선족 61명(72.6%) 이었다. 남한 주민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52명(52%), 탈북주민은 전문학교 및 대학교 이상 학력자가 19명(20.7%), 조선족은 45명(52.9%)이었으며,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살펴봤을 때 남한주민은 상 7%, 중 70%, 하 23.0%, 탈북 주민은 상 2.3%, 중 47.1%, 하 50.6%, 조선족은 상 9.5%, 중 81.0% 하 9.5%였다.

측정도구

인적 사항 질문지

각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출생년도,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직업, 경제상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Defense Style Questionnaire (DSQ)

자아방어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ond 등¹³⁾이 개발한 자기 보고형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Bond 등(1983)이 개발한 방어유형 설문지는 88개 문항 25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자기 보고형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과정에서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서 방어기제의 특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투사적 동일시’ 문항과 남한, 북한, 조선족 사람들 중 어느 한 집단의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전능화 기제를 측정하는 “나는 슈퍼맨처럼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쳐도 전혀 두렵지 않다”, 반동형성을 측정하는 “내 돈을 뺏어간 강도가 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항들이다. 그리하여 전체 63문항, 24개 방어기제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방어유형 설문지의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구 대상자의 방어기제 점수를 기초로 요인 분석한 결과, 전체 척도는 수동적 방어유형, 능동적 방어유형, 감정억압적 방어유형, 감정완화적 방어유형의 4가지 방어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43.22%를 설명했고, 방어유형 설문지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86이었다.

사회 문화적 특징에 대한 지각 질문지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특징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남한, 북한, 조선족 사회의 사회 문화적 차이 점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는 특징들을 연구자가 기준 문현에서^{5-7,21,25,26)} 선택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솔직하고 신뢰로운 사회의 특징,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의 특징,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11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일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척도에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plha)는 .77이었다.

조사 절차

남한 주민에 대한 설문은 2002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서울시에 위치한 회사 10곳, 대학교 4곳, 교회 6곳을 중심으로 한번에 1부에서 5부 내외로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탈북 주민에 대한 설문은 2002년 7월 하나원에서 실시되었다. 조선족에 대한 설문은 2002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서울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와 조선족 유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면 담

설문결과를 보완하고 해석하기 위해 탈북 주민과 재한 조선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탈북 주민은 총 21명으로 남자 9명, 여자 12명이었다. 연령은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들어온 지 3년 미만의 사람들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조선족 동포는 전체 10명으로 남자 3명, 여자 7명이다. 나이는 20대에서 5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유학생이 5명,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주부인 경우가 5명이었다. 면담에서는 설문 결과 남한 주민과 차이를 보였던 자아방어기제와 관련된 행동양상이나 특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질문했다. 면담시간은 평균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전체 집단의 자아방어유형간 상관

전체집단의 방어유형질문지의 하위요인인 방어유형간 상관을 제시하였다(Table 1). 수동적 방어유형과 감정억압적 방어유형은 .52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반면 수동적 방어유형과 능동적 방어유형은 상대적으로 .26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능동적 방어유형과 감정억압적 방어유형간에도 .18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방어유형 차이

남한 주민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능동적 방어유형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남 M=4.35, 여 M=4.06, $t_{98}=2.29, p<.05$) 탈북 주민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감정완화적 방어유형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남 M=3.37, 여 M=2.75, $t_{91}=2.69, p<.05$). 남한 주민 및 탈북 주민은 학력 및 경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방어유형 및 방어기제가 없었다. 반면 조선족은 학력에 따라 수동적 방어유형 $F_{1,80}=3.48, p<.01$,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 $F_{1,80}=3.50, p<.05$, 감정완화적 방어유형 $F_{1,80}=3.07, p<.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초중, 고중, 대학교를 비교했을 때, 학력이 낮을수록 수동적 방어유형,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 감정완화적 방어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자아방어유형 차이

남한 주민, 탈북 주민, 조선족의 방어유형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동적 방어유형, 능동적 방어유형,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수동적 방어유형의 경우 조선족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능동적 방어유형은 탈북 주민의 점수가 남한 주민과 조선족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고,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도 탈북 주민이 남한 주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defense styles in total groups

	Total	Passive defense style	Active defense style	Emotion repressive defense style	Emotion relieve defense style
Passive defense style	.856*	1.00			
Active defense style	.631*	.257*	1.00		
Emotion repressive defense style	.696*	.522*	.184*	1.000	
Emotion relieve defense style	.500*	.342*	.282*	.203*	1.000

* : <.01

집단에 따른 자아방어기제 차이

자아방어기제 점수가 남한 주민, 탈북 주민, 조선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어기제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탈북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 보다 '철수', '예견', '과제지향', '자제(suppression)', '이타주의', '분리', '부정' 등의 방어기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분리', '철수', '이타주의' 기제에서는 조선족들도 남한 주민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남한 주민들이 탈북 주민이나 조선족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방어기제는 없었다. 조선족들은 남한 주민들과 탈북 주민들에 비해서 '투사', '신체화'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집단에 따른 사회 문화적 특징에 대한 지각 차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징 지각에 대한 각 집

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은 솔직/신뢰, 개방/적극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솔직/신뢰 차원에서는 조선족의 점수가 탈북 주민이나 남한 주민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방/적극 차원에서는 조선족, 남한 주민, 탈북 주민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을 비교해 보았을 때, 탈북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나쁜 행동인지를 분명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을 사용해서 해결한다', '집단을 중시 여긴다'는 문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던 반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솔직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라는 항목에서는 남한 주민의 점수가 탈북 주민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조선족은 세 집단 중 자신이 속한 중국사회를 가장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북한에 비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솔직하게 표현

Table 2. Comparisons of defense mechanisms among 3 groups

Defense style	Defense mechanism	South Koreans (n=100)	North Korean defectors (n=93)	Korean Chinese (n=86)	F	Duncan post hoc
Passive defense style	Total	3.39 (.67)	3.45 (.82)	3.70 (.80)	4.07*	C>S, N
	Passive-aggressive	3.00 (1.04)	2.84 (1.15)	3.16 (1.31)	1.72	
	Projection	2.61 (0.83)	2.72 (0.87)	3.18 (1.01)	10.04†	C>S, N
	Regression	3.25 (1.28)	3.33 (1.46)	3.62 (1.42)	1.75	
	Withdrawal	4.25 (1.37)	4.79 (1.46)	4.65 (1.39)	3.88*	N, C>S
	Somatization	3.86 (1.47)	3.90 (1.68)	4.54 (1.44)	5.53†	C>S, N
	Acting out	3.27 (1.09)	3.30 (1.33)	3.58 (1.13)	1.79	
	Undoing	4.29 (1.04)	4.18 (1.28)	4.16 (1.19)	.38	
Active defense style	Fantasy	3.38 (1.42)	3.37 (1.51)	3.40 (1.44)	.01	
	Total	3.55 (.65)	3.86 (.82)	3.66 (.86)	3.73*	N>S
	Humor	4.54 (0.98)	4.42 (1.27)	4.35 (1.08)	.72	
	Idealization	4.61 (1.28)	4.83 (1.40)	4.70 (1.47)	.63	
	Anticipation	4.46 (1.09)	4.89 (1.28)	4.62 (1.31)	3.03*	N>S
	Task orientation	4.36 (1.28)	4.80 (1.59)	4.16 (1.34)	4.88†	N>S, C
	Omnipotence	3.88 (1.22)	4.21 (1.37)	3.99 (1.33)	1.64	
	Suppression	4.40 (1.22)	4.86 (1.42)	4.38 (1.23)	4.12*	N>S, C
Emotion repressive defense style	Altruism	3.43 (1.46)	4.34 (1.86)	3.95 (1.89)	6.74†	N, C>S
	Sublimation	4.38 (1.63)	4.60 (1.92)	4.69 (1.87)	.73	
	Reaction formation	3.64 (1.29)	3.81 (1.52)	3.68 (1.30)	.37	
	Total	4.19 (.63)	4.47 (.85)	4.23 (.70)	4.11*	N>S, C
	Isolation	3.06 (0.97)	3.11 (1.22)	3.24 (1.09)	.65	
	Inhibition	3.94 (1.03)	4.05 (1.23)	3.97 (1.13)	.24	
	Splitting	3.29 (0.96)	3.87 (1.23)	3.61 (1.21)	6.51†	N, C>S
	Help rejecting complaining	3.44 (1.40)	3.85 (1.56)	3.51 (1.59)	2.00	
Emotion relieve defense style	Denial	4.05 (1.17)	4.57 (1.24)	3.89 (0.14)	7.43†	N>S, C
	Total	3.18 (1.13)	3.04 (1.17)	3.28 (1.19)	.92	
	Affiliation	3.64 (1.31)	3.22 (1.65)	3.61 (1.41)	2.48	
	Consumption	2.73 (1.48)	2.87 (1.40)	2.94 (1.59)	.52	

* : <.05, † : <.01, ‡ : <.001, () : SD, S : South Koreans, N : North Koreans, C : Korean-Chinese

Table 3. Comparisons of the perception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mong 3 groups

Subscales	Items	South Koreans (n=100)	North Korean defectors (n=93)	Korean-Chinese (n=86)	F	Duncan post hoc
Frankness/ Trust	Total	15.09 (4.53)	14.30 (5.69)	18.08 (5.72)	12.29 [†]	C>S, N
	Society that is possible to behave conscientiously	3.76 (1.44)	2.81 (1.89)	4.78 (1.72)	30.62 [†]	C>S>N
	Society that is possible to express honestly	3.42 (1.40)	2.74 (1.88)	4.42 (1.82)	21.90 [†]	C>S>N
	Reliable society	3.81 (1.48)	3.98 (2.01)	4.28 (1.72)	1.71	
	Society which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4.10 (1.66)	4.85 (1.89)	4.73 (1.81)	4.92 [†]	N, C>S
Openness/ Activeness	Total	16.31 (3.79)	12.24 (4.89)	19.92 (4.04)	71.68 [†]	C>S>N
	Society in which problems are settled by violence [®]	3.46 (1.27)	4.84 (1.81)	2.73 (1.63)	41.47 [†]	N>S>C
	Society in which one can succeed by one's own effort	4.00 (1.55)	2.22 (1.73)	4.67 (1.80)	50.75 [†]	C>S>N
	Society in which various culture exist	4.62 (1.46)	4.16 (2.00)	6.06 (1.29)	33.48 [†]	C>S, N
	Society that is governed by the powerful individuals rather than laws and norms [®]	4.85 (1.47)	5.35 (2.08)	4.08 (1.80)	11.24 [†]	S, N>C
Collectivism/ Justification	Total	15.47 (2.91)	15.99 (3.82)	15.92 (3.65)	.64	
	Collective society	4.80 (1.66)	5.52 (1.78)	5.17 (1.78)	4.14*	N>S
	Society which emphasizes sacrifice and loyalty	4.67 (1.45)	4.77 (1.95)	5.20 (1.51)	2.59	C>S
	Society which emphasizes reputation and justice	6.00 (1.79)	5.73 (1.48)	5.55 (1.32)	3.26*	S>C

* : <.05, † : <.01, ‡ : <.001, ® : Reverse scored item, () : SD, S : South Koreans, N : North Koreans, C : Korean-Chinese

하는 사회로 지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갈등이 있을 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이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에 비해서는 개인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지각하는 등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방어유형과 사회 문화적 특징에 대한 지각간의 관계

자아방어유형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방어유형과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한 지각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남한 주민의 경우 능동적 방어유형은 집단/명분 하위척도 및 '희생과 의리를 중시여기는 사회'라는 문항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수동적 방어유형,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은 '법, 규칙보다는 힘을 가진 개인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사회이다'라는 문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탈북 주민은 수동적 방어유형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문항과, 능동적 방어유형이 '서로가 서로를 잘 믿는다'는 문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감정억압적 방어유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의 경우 수동적 방어유형, 능동적 방어유형,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 모두 집단/명분 하위척도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중국사회를 솔직하고 신뢰로운 사회로 지각할수록 수동적 방어유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은 어떠한 부정적 감정도 표현 할 수 없는 억압적 감시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정적 감정이 자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북한 사람 특유의 정신기제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Mazz²⁷⁾가 언급한 '감정정체'라는 독일 통일 이전의 동독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와 유사하다. 탈북 주민들이 북한 사회를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라고 인식할수록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이 사회적 폭력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한 사람들의 '법 규칙보다 힘을 가진 개인의 뜻에 좌우되는 사회'라는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수동적 방어유형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것 역시 개인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사회의 비민주적 분위기와 수동적 혹은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 주민들은 억압적 방어유형뿐 아니라 능동적 방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defense styles and their perception of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Subscales	Items	Groups	Passive defense style	Active defense style	Emotion repressive defense style	Emotion relieve defense style
	Total	S	.014	.064	-.035	-.033
		N	.146	.168	.011	.204
		C	.250*	.007	.146	.144
Frankness/ Trust	Society that is possible to behave conscientiously	S	-.044	.028	-.013	-.094
		N	.032	.021	-.049	.246*
		C	.317†	.166	.240*	.200
	Society that is possible to express honestly	S	.156	.052	.053	-.011
		N	.117	.066	-.076	.239*
		C	.104	-.034	.039	-.021
	Reliable society	S	-.011	.121	-.014	.135
		N	.165	.275†	.060	.126
		C	.175	-.070	.110	.118
	Society which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S	.057	.077	-.005	-.121
		N	.105	.098	.089	.008
		C	.249*	-.010	.157	.193
Openness/ Activeness	Total	S	-.174	-.077	-.106	-.062
		N	.036	-.012	-.146	.101
		C	-.038	-.108	-.039	.149
	Society in which problems are settled by violence®	S	.131	-.114	.037	-.162
		N	.049	.019	.235*	.090
		C	.080	.176	.039	-.084
	Society in which one can succeed by one's own effort	S	-.113	-.130	.044	-.199*
		N	-.047	.023	-.105	.223*
		C	.037	.043	-.037	.402†
	Society in which various culture exist	S	-.002	-.074	-.076	-.053
		N	.206*	.092	.046	.145
		C	.027	-.118	-.152	-.166
Collectivism/ Justification	Society that is governed by the powerful individuals rather than laws and norms®	S	.215*	.087	.214*	.037
		N	.043	.084	.102	.053
		C	.070	.041	-.094	.026
	Total	S	-.038	.239*	-.006	.163
		N	.102	.005	.086	.009
		C	.267*	.295†	.215*	.205
	Collective society	S	.054	.146	-.047	.245*
		N	.169	.065	.165	.020
		C	.243*	.288†	.222*	.204
	Society which emphasizes sacrifice and loyalty	S	-.183	.283†	-.031	.097
		N	.109	-.021	.139	-.014
		C	.236*	.236*	.213*	.208
	Society which emphasizes reputation and justice	S	.083	.057	.133	-.090
		N	.003	.010	-.082	.073
		C	.139	.156	.052	.053

* : <.05, † : <.01, ® : Reverse scored item, () : SD, S: South Koreans, N : North Koreans, C : Korean-Chinese

어유형 점수도 높게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탈북 주민들이 대부분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남한에서도 심리적 충격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할 수 있다.^{10,28)} 그러나 탈북 주민들은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인한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 탈북 과정에서 부딪힐 여러 위험

을 감수할 자신감과 대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탈북하여 남한까지 입국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보통의 북한 사람들보다 심리적 갈등을 적응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능동적 방어유형 중 탈북 주민에게 높게 나타난 자제, 이타주의, 과제지향의 내용은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지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북한사회가 지

향하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이다.²⁹⁾ 그러므로 탈북 주민들의 능동적 방어유형 점수가 높은 것이 실제로 탈북 주민의 정신기제 상의 특징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양식이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능동적 방어유형과 관련되어 흥미로운 점은 남한 주민 및 조선족의 능동적 방어유형은 사회 문화적 특징 중 집단주의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반면에 탈북 주민은 ‘서로를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는 문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조선족과 남한사회에서는 서로 돋고 희생하는 공동체적 사회환경이 심리적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반면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북한의 집단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북한 사람에게는 집단주의보다 사람들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적극적인 대처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이 자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회적 요인일 수 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남한주민, 탈북주민, 재한 조선족은 자아방어기제 활용에도 차이가 있었다. 탈북 주민들은 남한 주민들 보다 ‘분리’, ‘부정’, ‘철수’, ‘자체’, ‘이타주의’, ‘과제지향’, ‘예견’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했고 ‘분리’, ‘이타주의’, ‘철수’는 조선족들도 남한 주민들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이중 ‘분리’ 와 ‘이타주의’는 사회주의 체재와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신기제로 보인다. 여러 연구들에서 탈북 주민들의 특성으로 극단적인 행동의 변화나 흑백 논리적 태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9,30)} 이러한 결과는 분리기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로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면담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탈북 주민들도 분리기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행동상의 특성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두드러진다고 언급했으며, 이러한 특성이 북한사회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지주 대 무산계급과 같은 명확한 이분법적 상징체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일단 출신성분에 의해 구분이 되고 나면 사회로부터 받는 편견이나 불이익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상황에 대한 다양한 평가나 분석보다는 지시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 기제와 관련 있는 탈북 주민들의 이분법적, 흑백 논리적 사고의 인지적 패턴은 단시간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므로 탈북 주민들은 남한 생활에서 화나는 것도 많고 참아야 하는 것도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한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상당히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나는 화가 나면 드러내놓고 화를 내기보다는 비꼬거나 빙정거리는 경향이 있다”, “상사가 괴롭히면

직접 따지기보다는 일부러 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곤경에 빠뜨려 버릴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이 이와는 다른 북한 사람들의 태도를 더욱 직선적이고 완고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타주의 역시 탈북 주민 뿐 만 아니라 조선족들에게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교양교육이 북한 사람들과 조선족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담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이타기제의 활용은 어떤 사회적 상황인가와 관련이 깊었는데, 이타주의 기제에 의한 이타적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같은 친분관계가 있는 소속 집단의 구성원에게 국한되며 수재민 같은 외 집단원에게 향한 일은 없었다. 즉, 집단주의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집단을 벗어나서는 오히려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사회주의 체재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었다. 철수기제는 탈북 주민과 조선족이 모두 남한 주민에 비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회적 배경은 상당히 달랐다. 탈북 주민들이 철수 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도 드러 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다가 서로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중국이나 제 3 국에서 도피 생활 중에 이러한 태도가 더욱 강화된 것에 기인하는 반면 재한 조선족은 남한에서의 법적인 신분, 즉,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탈북 주민의 특징적인 방어기제로 나타난 ‘부정’ 기제는 남한 소식이나 금지 물품, 조직의 부정, 밀수 같은 문제에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위협적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아비판이나 생활 총화를 통해서 자신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원치 않게 남에게 알려지고, 이것은 개인에게 심리적,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정신적 갈등이나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방어기제를 더욱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탈북 주민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부정 기제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관련된 갈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탈북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서 부딪히는 심리적 갈등상황에서도 부정 기제를 자주 활용함으로 인해 동일한 양상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이 부정, 철수, 분리 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탈북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데 특히 몇 가지 취약성을 내포하

고 있다. 이들은 불신감이나 조심스러운 태도들로 인해 행동이 많이 철회되어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렵게 관계를 맺었다가도 상대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갑자기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수용하지 못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해결하거나 참으려고 노력하다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탈북 주민들의 행동 특성에 대한 남한 사람들 및 탈북 주민 스스로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들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돋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 주민들은 남한 주민이나 조선족들보다 자체 기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하고 침착하며 자체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2,1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사람들은 급하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특징을 지녔다고 보고되고 있는데,^{2,11)} 탈북 주민들의 '자체'와 '분리' 기제 점수가 모두 높은 것은 이러한 이들의 상반된 특성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제 중 어떤 방어기제가 주로 활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탈북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은 사적인 일상 생활에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분명하고 다소 극단적이며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정부나 체재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참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탈북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제지향 역시 이러한 자체 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 체재와 관련된 참기 힘든 불만이나 부정적 감정을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긍정적 의미에서는 마땅한 개인적인 여가활동이나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불편한 감정을 승화시키는 북한 사람들의 적응기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탈북 주민들이 남한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은 단순히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서 정신건강과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이며 성숙한 정신기제로서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람이나 조선족들보다 자주 사용하는 '예견' 기제 역시 이들의 억압적 사회체제와 관련이 깊다. 탈북 주민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말을 한번 잘못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나 불평이 있어도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보는 습성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

의 식량난과 함께 사회적으로 금지된 자신의 생활 방편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철저하게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습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즉, 예전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북한 사람들의 태도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탈북 주민들에게 주로 활용되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신기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재한 조선족들이 남한에서 평균 4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입국목적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제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조선족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남한, 북한, 조선족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나 설문 실시방법 등이 보다 잘 통제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 방어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적 파생물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무의식적 과정인 방어과정을 이해하는데는 다소 제한적이다. 따라서 추후 정신 역동적 임상면담이나 심리검사 등의 다른 방법으로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째,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문화적 특징 지각 질문지 및 방어유형 설문지가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타당화 연구를 통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탈북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과 능동적 방어유형을 많이 사용했고 특히 감정 억압적 방어유형은 사회의 폭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부정, 자체, 과제지향, 예견, 분리, 이타주의, 철수 기제를 많이 사용했으며, 이중 분리, 이타주의, 철수는 조선족도 남한 주민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사용했다. 탈북 주민의 특징적인 자아방어기제는 북한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깊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남한 사회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행동 및 적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교육 및 정책, 통일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심 단어 : 북한이탈주민 · 방어기제 · 사회문화적 특징.

REFERENCES

- 1) 최 현, 김지영. 청소년의 성격 형성과정에 대한 남북한 비교

- 연구.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서울: 한국심리학회;1993. p.224-245.
- 2) 성영신, 서정희, 심진섭. 남북한의 경제심리 비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서울: 한국심리학회;1993. p.247-277.
 - 3) 김경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1995. p.3-40.
 - 4)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민족통일 연구원;1996.
 - 5) 민성길. 통일과 남북청소년. 연세대학교 출판부;2000.
 - 6) 민성길. 북한사람의 인격구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2001;5:5-46.
 - 7) 이상호. 통일의 심리학적 접근: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2000.
 - 8)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1997;1:109-168.
 - 9)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7;36:145-160.
 - 10) 전우택, 윤덕룡. 2001년도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 보고서;2001.
 - 11) 전우택, 윤덕룡, 강성록, 김형중, 민성길. 비정부 기구(NGO)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및 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 2001;5:157-184.
 - 12) Freud S. Letters 58. In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in the work of Freud, Ferenczi, and Abraham. Psychoanal Qua L IV;1897.
 - 13) Bond M., Gardner S., Christian J., Sigal J.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 Gen Psychiatry 1983;40:333-338.
 - 14) Bond M., Paris J., Zweig-Frank H. Defense styl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 Pers Disord 1994;8:28-31.
 - 15) Cramer P. The development of defense mechanisms. J Pers 1987;55: 597-614.
 - 16) Snarey J., Valliant G. How lower and working-class youth become middle-class adults: The association between ego defense mechanisms and upward social mobility. Child Dev 1985;5:899-910.
 - 17) Soldz S., Valliant GE. A 50-year longitudinal study of defense use among inner city men: A validation of the DSM-IV defense Axis. J Nerv Ment Dis 1998;186:104-111.
 - 18) Hart D., Chmiel S. Influence of defense mechanisms on moral judgement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 Psychol 1992;28: 722-730.
 - 19) Slavin LA., Rainer KL., McCreary ML., Gowda KK. Toward a multicultural model of the stress process. J Couns Dev 1991;70:156-163.
 - 20) Frye B., D'avanzo C. Cultural themes in family stress and violence among Cambodian refugee women in the innercity. Adv Nurs Sci 1994;16:64-77.
 - 21) 민경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통일. 심리과학 1994;3:84-99.
 - 22) 배기영. 한국속담의 자아방어기전. 신경정신의학 1984;23:418-424.
 - 23) 이근후, 박영숙.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과거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신경정신의학 1990;29:721-732.
 - 24) 이부영.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인의 성격.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서울: 고려원;1984.
 - 25) 김홍규. 남북한 청소년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요인분석. 한국 청소년 연구원 보고서: 민족 정체성과 남북한 청소년;1992.
 - 26) 이광규. 격동기의 중국 조선족. 백산서당;2002.
 - 27) Maaz HJ. 사이코의 삶. 민음사;1990.
 - 28) 강성록.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석사학위]. 서울: 연세대학교;2000.
 - 29) 김현찬. 청소년 교양에서 교육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사;1990.
 - 30) 최봉대. 북한사회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기제. 현대북한연구 1999;2:233-302.